

손흥민, 첼시 이적설 '모락모락'

**영국 언론, 주급 6억원 등 3배 인상 전망
팬들 반응 엇갈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쏘니'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이적할지 관심이 쏠린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이 EPL 명문 첼시로 이적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영국 매체인 '아이풋볼'은 5일(한국시간) "첼시가 한국의 스타인 손흥민에게 8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168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손흥민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손흥민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약 세 배를

제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급 14만 파운드(한화 약 2억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급이 3배로 된다면 42만 파운드(한화 약 6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 EPL 최고액의 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알렉시스 산체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9만 파운드(한화 약 5억7천만 원)보다도 많은 돈이다. 하지만 토트넘이 같은 연고지(런던) 라이벌이자 리그 우승 경쟁자인 첼시로 핵심

공격수를 이적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보도를 접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한 팬은 "은골로 칸테(첼시)와 팀 내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가 7번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또 손흥민 축구 스타일이 첼시와도 잘 어울릴거 같다. 당장 이적하지 않더라도 손흥민의 몸값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 같아 이적 소식이 반갑다"고 전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팬은 "구단 입장에서 주급 6억 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손흥민과 비슷한 실력을 갖춘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해리 케인(토트넘) 세르히오 아귀에(맨체스터 시티) 등 선수들도 주급 4억을 넘기지 못

고 있다"면서 "또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첼시로 이적한다는 것은 토트넘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등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하면서도 시즌 14골을 터뜨리며 필필 날고 있다. 지난 2일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18-2019 EPL 25라운드에선 후반 38분 천금 같은 결승골을 쏘아올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해리 케인, 델레 알리 등 주축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현지 언론의 좋은 평가도 줄을 잇고 있다. 한국기자 hkk42@srb.co.kr 뉴시스



'2경기 연속 골' 손흥민, 25라운드 베스트11에

BBC·스카이스포츠 동시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영국 언론이 선정한 2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 축구 분석가인 가스 크로스는 4일(한국시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EPL 주간 '베스트 11' 미

드필더 부문에 선정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18-2019 EPL 25라운드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38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왓포드전에 이은 2경기 연

속 골이다. 리그 10호이자 시즌 14호 득점 포이기도 하다. 그는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출전 여파가 느껴지지 않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리 케인, 델레 알리 등 주축 선수들이 빠진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이 가문의 단비나 다름없다. 크로스는 "손흥민이 돌아와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가 돌아온 것은 페라리에 가솔린을 넣는 것과 같다"고 칭찬했다. 영국 스포츠 매체인 스카이스포츠도 손

흥민을 '이 주의 팀'에 포함시켰다. 손흥민은 1990년대 잉글랜드 국가대표 풀백으로 명성을 날렸던 스튜어트 피어스가 직접 선정한 '이 주의 팀'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에덴 아자르(첼시) 세르히오 아귀에(맨체스터 시티)가 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피어스는 "마커스 래시포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신의 100번째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이들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뉴시스

류현진, 선발투수 랭킹 53위

팬그래프닷컴 평가...1위는 슈어저

팬그래프닷컴이 류현진(32·LA 다저스)을 올해 메이저 리그 선발투수 53위로 평가했다. 팬그래프닷컴은 5일(한국시간) 메이저 리그 선발투수 랭킹을 120위까지 정하면서 류현진의 이름을 53위에 올려놨다. 류현진은 왼쪽 사타구니 부상 탓에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15경기에 선발 등판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팬그래프닷컴은 부상 이력 때문인지 류현진의 올 시즌에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류현진의 예상 성적을 17경기 88이닝, 6승 5패 평균자책점 3.89로 예측하기도 했다. 류현진이 시즌 개막 후 부상에 대한 우려를 날린다면 랭킹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팬그래프닷컴은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를 선발투수 랭킹 1위에 올려놨다. 제이콥 디그를(뉴욕 메츠)과 크리스 세일



(보스턴 레드삭스)이 2, 3위에 올랐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저스틴 발렌타인과 게릿 콜이 뒤를 이었다.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는 10위로 평가됐다. 워커 블러가 14위, 로스 스트리플링이 36위, 리치 힐이 45위, 마에다 겐타가 46위로 류현진보다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 투수 가운데서는 다투스 유(시카고 컵스)가 28위로 가장 나은 평가를 받았다. 다나카 마사히로(뉴욕 양키스)가 33위였고, 마에다가 뒤를 이었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가쿠치 유세이(시애틀 매리너스)는 류현진보다 낮은 58위로 평가됐다. KBO리그 SK 와이번스의 에이스로 활약하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메릴 켈리(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105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대한항공, 우리카드 제압... 2위로 복귀

대한항공이 우리카드의 추격을 뿌리치고 정규리그 우승 경쟁의 불씨를 살렸다. 대한항공은 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3 25-19 25-20) 완승을 거뒀다. 승점 55(18승10패)로 우리카드(승점 53·17승11패)를 제치고 2위가 됐다. 한 경기 틀 치른 선두 현대캐피탈(승점 56·21승6패)과는 1점차다. 광승석이 15점, 공격성공률 61.90%의 만점 활약을 펼쳤다. 리시브와 디그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가스파리니는 20점으로 팀 내 최다 점수를 올렸다. 1세트 초반 흐름을 잡은 쪽은 우리카드였다. 한성정의 공격과 아가메즈의 서브가 통하면서 리드를 잡았다. 대한항공은 광승석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여기에 가스파리니까지 가세하면서 20

-22로 추격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 대한항공은 마침내 승부를 뒤집었다. 광승석의 후위공격과 상대 범실로 균형을 맞추더니 가스파리니가 아가메즈의 공격을 차단, 역전에 성공했다. 2세트도 팽팽하게 전개됐다. 우리카드가 아가메즈의 서브 에이스로 치고 나가자 대한항공은 컨디션이 좋은 광승석을 활용해 따라 붙었다. 승부는 중반 이후 대한항공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16-14에서 원포인트 서버로 등장한 임동혁이 과감한 서버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다. 임동혁이 서버 에이스 2개를 묶어 6개의 서버를 시도하는 동안 점수는 21-14가 됐다. 대한항공은 3세트에서도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가스파리니는 18-14에서 긴 랠리를 정리하는 공격 득점으로 분위기를 달렸고 대한항공이 승리했다. 뉴시스



싱가포르 오픈 첫날 경기하는 '뉴시 스윙' 최호성

최호성 '뉴시꾼 스윙' 큰물로 가다

'뉴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46)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도 주목했다. 최호성은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리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리는 PGA 투어 AT&T 페블 비치 프로암에 출격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각 156명의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른다. 최호성은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 기회를 잡았다. PGA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호성을 집중 조명했다. 최호성이 돈이 부족해 병원에서 출생하지 못한 것과 어린 시절부터 물을 좋아하는 사실, 고교 시절 실습을 나갔다가 오른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

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그는 스타덤에 올려놓은 '뉴시꾼 스윙'이 빠질 리 없다. 최호성은 뉴시 폼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스윙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번 대회에 나서게 된 것도 특이한 폼이 한 몫 했다. 최호성은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 스윙을 사랑한다.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한 것이 아니고, 20대 중반에 시작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면서 "어느 정도 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려운 골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동작으로 비거리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니 지금의 스윙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팬들은 뉴시꾼 스윙을 직접 보게될 전망이다. "나는 내 몸이 가는 대로 구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최호성은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